

기 개념의 이해와 간호 실무 적용

김명자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Understanding Qi: Its Development and Clinical Application to Nursing Practices

Kim, Myungja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urpose: This paper analyzed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Qi concept and assesses its possible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complementary therapy and new nursing practices. **Methods:** In order to clarify the Qi concept and measure its theoretical/clinical potentials, this study analyzed both historical data and experimental research that adopt and apply the concept. These include modern/contemporary research measuring its effects in promoting mental and physical health. Using the method of cross-cultural comparison, this study analyzed diverse approaches to the Qi concept and sought to find common features among the approaches. **Results:** A historical, cross-cultural analysis revealed several fundamental similarities between Qi theories that have developed in the east and the holistic concepts that have evolved in the western traditions. Especially, the analysis of the more recent research on the Qi concept shows ample possibilities of its future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new diagnostic applications and the promotion of overall human health. **Conclusion:** The historical study of the Qi concept found some key common factors in the diverse philosophical traditions in the east and the west. Considering the growing popularity of complementary therapy among health professionals and the general public, the Qi concept and its clinical applications are expected to promote human health.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developing new nursing practices based on the concept by clarifying its philosophical origins and theoretical backgrounds.

Key words: Qi, Oriental Medicine, Complementary therapies

서 론

기(氣)라는 용어는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언어를 배우는 성장 과정에서 기의 용법들을 자연스럽게 익혀왔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는 잘 알지 못해도 직관적으로 이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있다. 실제로 ‘기가 막히다,’ ‘활기차다,’ ‘기가 살아서’ 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의 대화에서 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막상 ‘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대답이 각양각색일 뿐만 아니라 모호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는 기에 대한 경험적 또는 직관적 지식은 지니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나타나는 혼란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Kim (1996)은 기를 한국문화를 특징짓는 핵심적인 어휘라고 언급하면서 실제로 기와 연관이 되는 단어가 한한(韓漢)대사전에 약 400여 개나 된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최근 건강관리의 차원에서 예방개념을 포괄하는 건강증진을 지향하는 다학제적 관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커지면서 기에 대한 기사가 언론의 주요 주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 기 관련 도장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수련을 하고자

주요어 : 기, 한의학, 보완대체요법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Myungja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505 Banpo-dong, Seocho-gu, Seoul 137-040, Korea
Tel: 82-2-590-1284 Fax: 82-2-590-1297 E-mail:mdja@catholic.ac.kr

투고일 : 2008년 2월 5일 심사회의일 : 2008년 2월 5일 게재확정일 : 2008년 5월 23일

하는 인구가 500만 명을 넘는다고 하니 기에 대한 대중적 열기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Kim, 2007).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를 신비한 것으로 오도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어 피해사례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Yonhap News Agency, 2006).

구미나 중국, 일본 등의 최근의 기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기는 신비한 무엇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며 실제로 물리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Gerber, 1988; Sancier & Hu, 1991; Yuasa, 1992). 과학의 영역을 물질로 환원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기존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 기는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과학사적으로 엄밀하게 살펴볼 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학문의 대상은 없다. 물질적 존재이건 초자연적 현상이건 관찰되는 것은 무엇이나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문제의 관건은 접근방법이 과학적인가의 여부일 뿐이다(Bang, 2005).

본 논문에서는 기 개념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보다 확고히 하고, 기 개념을 바탕으로 한 간호 중재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써, 기 개념에 대한 이해와 그 적용이 동양과 서양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되고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중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동양 사상 및 이에 기반한 한의학에서 기 개념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서, 기 개념을 원용한 기존의 연구들은 경험적 차원의 증명에 집중한 나머지 새로운 간호과학 이론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을 충분히 모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Lee, Cho, Kang, & Shin, 2003). 따라서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기 개념의 변천과정을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들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기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고, 이 개념이 지니는 이론적 중요성을 언급할 것이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기존의 기 개념과 이를 원용한 여러 이론들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보완·대체요법과 간호중재 개발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 개념과 이에 바탕한 동양의학이 간호중재에 이용되는 여러 연구 사례들이 소개되고, 이들이 이론 발전과 독자적 간호중재의 개발에 있어서 지니는 함의가 언급될 것이다.

동서양의 기 개념 고찰

중국과 우리나라의 고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의 개념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저자에 따라서 설명하는 바가 다양하여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다. 여기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와

서양의 대표적인 고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과 사용 방식을 밝혀냄으로써 기 개념에 대한 논의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 개념과 현대 과학과의 연결고리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중국

일반적으로 중국 사상사에서는 기라는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를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BC 770-BC 221)로 본다. 기 개념은 동양 사상의 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고대 중국의 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준 유가(儒家) 사상, 특히 공자(BC 551-479)와 맹자(BC 371-289경)의 가르침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먼저 공자는 <논어>에서 기의 예로 사기(말하는 것), 병기(몸가짐:숨소리를 줄임), 식기(주식으로 하는 곡물), 혈기(생리작용과 결부시킴)를 들면서 신체적인 기에 관심을 두었다. 이에 비해 맹자는 <논어>의 입장과는 다르게 '호연지기(浩然之氣)'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한 크고 넓은 기를 지시하면서 이 기를 곧게 잘 키우면 천지에 가득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바, 심리적인 측면의 기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유가에서는 기가 도(道) 및 의(義)와 함께 할 때 더욱 활력이 생긴다고 주장함으로써 물질적인 개념의 기에 윤리적인 속성을 부여하였으며, 한편 심기(心氣)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마음의 상태를 지시하기도 하였다(Bang, 2005).

한편, 노장사상의 기초를 이루는 도가(道家)는 덕목으로서의 도를 중시하면서도 생명력과 연관이 되는 다양한 기 개념을 발전시켰다. 도가는 만물은 기가 모여서 생기는 것이며 이러한 기의 한 발현으로 인간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유가에서와 같이 인간의 삶에 덕목의 실천이라는 윤리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것에 의미를 두지 않을 때 그 삶이 온전해진다고 보았다. 이것이 도가 사상의 핵심인 무위자연(無爲自然)의 개념이며, 여기서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Kim, 1996). 이후 기의 개념은 유형의 기와 무형의 기로 나뉘면서 음양의 기, 천지의 기처럼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다.

진한시대에는 음양과 오행의 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이중 기 개념과 관련하여 원기(元氣)를 만물의 기원이자 생명의 근원이 되는 존재를 설명하는 근원 개념으로 접근한 원기론은 주목할 만하다. 이 이론은 인체의 조직에 자연계의 음양오행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간은 목, 심장은 화, 비장은 토, 폐는 금, 신장은 수로 대응시키면서 각 장기의 기능

과 특성을 천지만물과의 상호관계로 설명하는 생리학적 도출을 이끌어 냈다(Jung, 1996). 여기서 언급되는 음양과 오행은 천지자연의 변화현상을 기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이다. <역경>은 음양을 상반되는 2종류의 기(風, 雨, 晦, 明, 天)로 설정하고 천지자연의 운행을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천지만물의 생멸과 변화를 기의 모임과 흩어짐이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이 비롯되었다. 한편 오행이란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를 뜻하는데, 음양오행설은 음양과 오행의 개념을 통합하면서 체계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기론은 송대를 거치면서 심화된다. 주자(1130-1200)는 기의 근거를 이(理)라고 주장하면서 이학(理學)을 창시하였고 왕양명은 인간의 마음이 곧 이(理)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인간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심학(心學)의 기초를 닦는데, 이 두 구분이 청대까지 이어진다. 11세기 송대의 성리학자들은 형이상학적 틀과 우주생성에 관한 존재론을 구축하면서 거의 1,000여 년간에 걸쳐 실추되었던 유학(儒學)의 학문적 사상체계를 재정비하게 되었는데, 이를 신유학(neoconfucianism)이라고도 한다. 신유학을 통해 유가가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철학적 세계관을 지니게 되었고 심성수양의 학문으로서 종교적 성격을 띠면서 새로이 기반을 다지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기의 개념이 형이하학적 성격을 지니면서 유가의 핵심 사상과 결부되기 시작했는데, 기 개념의 내면적 질서를 이(理)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이때 이루어졌다.

성리학의 중심사상인 이학의 기초를 세운 주돈이(1017-1073)와 장재(1020-1077)의 뒤를 이어 남송의 주희(1130-1200)는 우주를 형이상학적인 형체가 없는 무상(無象)과 형체가 있는 형이하학적인 유상(有象)의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였다. 주희는 무상의 본래 모습을 이(理)로 보고, 이를 만물이 생겨나는 본체로 이해하였고, 만물을 구성하는 유상을 물질적 요소로서의 기(氣)로 파악하였다. 그는 여기서 인간의 감정, 의지, 사유까지를 기의 한 요소로 보았다. 기의 특성은 매우 유동적이고 활동적이어서 태초의 기가 음양으로 분화되고 이어서 오행으로 갈라져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본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와 같은 운동과 변화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으며 이러한 정형화된 질서의 본체가 바로 우주를 주재하는 원리인 이(理)라고 하는 주자학을 집대성하여 중국 사상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2. 한국

우리 고유의 선(仙)사상을 기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조선 중엽에 성리학이 크게 성하면서 기에 대한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선 중기의 서경덕(화담: 1487-1546)은 기를 철학의 중심주제로 삼고 이와 기 개념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고와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는 기를 영원불멸하는 실재로 보고 만물이 모두 기의 이합집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유기론(唯氣論)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성리학과는 달리 기일원론(氣一元論)의 입장에서 이기론을 체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경덕은 기 이외에 별도로 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가 시초가 없듯이 이 또한 시초가 없으며 따라서 이, 기가 동시에 발원한다고 하는 이기일원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흐름은 주기론을 전개한 이이(1436-1584)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었다. 서경덕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이는 이와 기는 서로 혼연되어 있어 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기를 별개로 보는 이황(1501-1570)의 관점과 거리를 두었다. 이이는 이와 기의 근원은 하나이며, 따라서 둘이면서 하나를 이루는 통일체로 파악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이는 기의 주재가 되고 기는 이의 주재가 되는 분리될 수 없는 오묘함(理氣之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이는 무형이고 무위이나 기는 유형을 띠면서 작용, 운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는 막히는 것이 없고 승하나 기는 막히거나 뭉침이 있으며 스스로 발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기를 이보다 중심에 놓는 주기론(主氣論)을 주장하였다. 이 입장에서는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본연의 이, 기(本然之理氣)이나 기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여 악을 구성하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 개념과 관련된 이론은 조선 후기와 말기에 실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정약용(1762-1836)은 유학과 서양문물 그리고 천주교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모든 만물은 기로 형성되어 있고 그 기에 내재하는 원리를 이로 파악하였으며, 인간을 주어진 현실을 보다 낮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려는 주체로 이해하였다. 그는 또한 초월예의 의지를 순수하고 선한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상태를 인간성의 실현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성리학의 교조적인 관념에서 벗어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이해된다.

최한기(1803-1877)는 기학(氣學)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연의 기를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을 종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기를 사람의 기인 형질의 기(形質之氣)와 움직이고 변화하는 천지, 자연의 기(運化之氣)로 구분하면서 기를 실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러한 입

장은 기존 성리학의 이, 기 개념과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우주를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 규정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신기(神氣)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여기서 그는 신기가 구체적인 형체를 빌려 나타나게 되면 특유의 가치와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인간도 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사람의 신기는 본래 아무 경험을 하지 않은 백지상태이나 사물을 지각하고 이를 경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성장 발달하며 이에 따라 시간성을 지니게 되므로, 인간 본성을 탐구하려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실상인 자연의 기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같은 기를 받아 생겨나는 천지만물이 각자 다른 신기를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개인마다 다른 신기를 지니지만, 그중에서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 서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당시의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자각을 일깨웠다고 평가되고 있다(Bang, 2005).

조선 말기 실학자들인 정약용과 최한기의 선구적인 연구들은 기에 대한 해석이 사변적 성리학의 고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현실에 바탕을 둔 실제적이고도 실용적인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3. 서양

산업혁명 이후 근세 300-400년의 짧은 시기에 급격하게 발달한 서양의 과학기술에 바탕한 의료계의 일각에서는, 수천 년 동안의 세월을 거치면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실질적인 생체실험을 통해 검증되어 온 침구술과 같은 요법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 기술사(history)의 시각

에서 볼 때 역설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동양의 과학기술이 서양의 그것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았으며 또한 동양의 많은 과학기술이 서양으로 전파되어 서양 과학기술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Cuema, 1998). 이러한 맥락에서 서양문명사에서 나타나는 기 또는 이와 유사한 대응 개념들을 고찰하는 것은 기 개념이 앞으로 과학기술이나 의료기술에 공헌할 여지를 구축하는 기초 작업의 하나가 된다.

서양 사상사에서 기 개념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이해하기 힘든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명사의 관점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기(Qi) 개념의 발전에 관심을 가진 서양의 학자들 중 Clark와 Louis (1988)는 기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는 목적에서 기존의 여러 기 관련 문헌들을 참조하였는데, 이를 통해 기 개념을 생체 에너지의 일종으로 접근하는 선구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바 생체 에너지로 파악되는 기의 특성과 다양한 명칭들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 2).

Table 1에서 제시된 서양 사상사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생체 에너지의 특성들 중, 이 에너지가 모든 유기체에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2)과 호흡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4), 감정적이고 영적인 상태와 연관된다는 시각(6), 다른 유기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10), 그리고 정신(mind)에 의해 통제 가능하다는 해석(12) 등은 앞서 살펴 본 동양의 기 개념 및 이론들, 특히 중국의 원기론과 정약용의 인간관 그리고 최한기의 기학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able 2에서 열거되고 있

Table 1. Characteristics of Bio-Energy

1: It comes with the sunlight, which originates from sun
2: It is contained in every living organism
3: It radiates and reflects itself while pulsating
4: It is affected by breathing
5: It changes following climate
6: It is affected by emotional and spiritual conditions
7: It pulsates on 24-hr basis
8: It has polarity which is different from electricity
9: It is transmissible through glass, plastic, silk, and other organic stuff
10: It may affect distant living organism
11: It leads the entire growth process from birth to death
12: It can be controlled by mind
13: It is communicable
14: It is contrary to entropy, the second principle of thermodynamics, because it flow from low to high density; it stimulates recovery or revival because it creates order from disorder

Table 2. Various Name about Qi

Source/researcher	Name
Yellow Emperor (c.2697BC-c.2598BC)	Chi
Yoga (c.3300BC-c.1700BC)	Prana
Pythagorus (c.580BC-c.500BC)	Pneuma
Hippocrates (c.460BC-c.370BC)	Physis
Paracelsus (1493AD-1541AD)	Quintessence
Stahl (1660AD-1734AD)	Anima
Hahnemann (1755AD-1843AD)	Vital force
Mesmer (1734AD-1815AD)	Animal magnetism
Galvani (1737AD-1798AD)	Life force
Reichenbach (1788AD-1869AD)	Odic force
Kilner (1847AD-1920AD)	Human atmosphere, aura
Boirac (1851AD-1917AD)	Nerve radioactivity
Barety (published in 1887)	Neuric energy
Kammerer (1880AD-1926AD)	Formative energy
Burr (1889AD-1973AD)	Electrodynamic fields
Reich (1897AD-1957AD)	Orgone energy
Selye (1907AD-1982AD)	Adaptive energy
Inyushin (first published in 1970)	Bio-plasma
Motoyama (1925AD-)	Ki
Miller (first published in 1982)	Paraelectricity
Tiller (first published in 1993)	Psycho energetic fields

는 여러 명칭들 중 Paracelsus의 '정수(quintessence)' 개념과 Hahnemann의 '핵심적인 힘(vital force)' 개념, Galvani의 '생명력(life force)' 개념과 Kilner의 '인간장 또는 오라(human atmosphere, aura)' 개념들 역시 동양의 기 개념과 유사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중 특히 Kilner (1847-1920)는 내과의로서의 경력을 심분 활용하여 사람의 몸 주위에는 일종의 에너지 장으로 보이는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인체의 외부에 나타나는 빛의 색깔과 형상인 오라(aura)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였다. Kilner 외에 적지 않은 수의 의사들도 오라를 볼 수는 없어도 직관에 의존하여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사물에 존재하는 에너지장을 동양의 기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 이론의 수렴과 연구

동양의학은 기를 기체, 힘, 인체의 생명력, 우주의 본질로 접근하면서 자연계를 형성하는 기본 물질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실학에서 그 정점을 이루는 유교 및 도교의 전통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동양의학은 인체를 기의 체계로 인식하고, 건강 정도를 올바른 기(正氣) 또는 진정한 기(眞氣)가 특정한 형태로 분화되어 특정한 기능과 연관되는 상태로 파악한다(Yuasa, 1992). 여기서 인체의 기본이 되는 정기(正氣)는 원기(元氣)와 정기(精氣)를 통칭하는데, 원기는 진기를 말하여 정기(精氣)는 작용효과에 따라 경락을 흐르는 중기, 각 장기에서 생산되어 혈액과 함께 전신 순환 및 대사기능을 촉진하는 영기, 외부로부터 병을 유발하는 사기를 방어하는 위기, 기의 배출을 조절하는 섭기, 허풍으로 인체를 상하게 하는 사기, 음기 등으로 구분된다(Jung, 1996).

이와 같은 동양의 기 이론들은 기를 힘(force) 또는 일종의 에너지로 파악하는 서양의 전통과 비교적 쉽게 연결되며, 여기서 기에 대한 과학적 설명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동양의 기 이론과 서양의 에너지 또는 정수(quintessence) 개념을 통해 본 인체는 이(理)가 실려 있는 정보적 존재인 동시에 생명체로서의 에너지적 존재로 파악되며, 따라서 인체의 건강상태는 에너지의 균형이나 에너지 장에서 나타나는 파동의 정합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인체의 기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그 변화 정도로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진단법으로 연결이 된다(Bang, 2005).

앞서 언급한 Kilner의 예가 보여주는 것처럼 근세 서양에서는 '생명과학'(bio-science)의 전통에서 기 개념 및 그 현상이 꾸준히 연구되어 왔는데, 이는 동양에서 기 관련 이론 및 실무

가 근세 들어 도입된 서양의 과학기술에 의해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무력한 모습을 보여 온 것과 큰 차이를 보여 준다. 특히 '생명공학'(bio-engineering)의 관점에서는 근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생물체의 생명현상과 연관된 연구들의 세분화 경향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Sohn, 2004), 이는 기의 개념 그리고 이와 유사한 생명과학의 핵심 개념들이 우주 본질로서의 기로부터 생명력을 의미하는 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는 넓은 의미로 접근하면 물리적, 초 물리적 에너지로 이해될 수 있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인체나 생명체에 존재하는 기로 국한시키는 경우에는 본질적인 생명에너지를 의미하게 된다. 물리학이나 의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그 실체와 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명과학의 영역에서는 기를 초자연적 에너지로 파악하는 데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Wilber, 1996; Yuasa, 1992). 생명현상의 기초단위는 유전자 정보를 가진 세포이며, 이 세포는 생명 유지와 관련된 일종의 신호에 반응하면서 신체의 각 부분이 보내는 모든 신호를 시상하부에서 접수하여 필요한 정보를 각각의 부위에 전달한다. 이와 같이 시상하부는 음성피드백(negative feedback)에 의해 각 조직의 기능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데, 이로부터 살펴본 바의 기의 수준에 따라서 인체의 항상성 유지 및 조직의 활성도 그리고 건강상태가 결정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Kim & Lee, 1998). 최근 몇몇 과학자들이 원자의 구조를 규명하는 데 있어 동양의 기 개념에서 실마리를 찾으려 하는 등 동양사상인 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Clark & Louis, 1988; Wilber, 1996).

일단의 과학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기의 흐름을 일종의 에너지 흐름으로 파악하고, 인체를 생명 에너지를 발산하는 유기체로 접근한다. 이들은 인체에는 신체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오라 에너지의 3가지의 에너지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각각의 에너지는 인체의 상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방산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기를 일종의 에너지장으로 파악하고 이를 진단에 적용하기 위해서 인체의 전기적 흐름을 측정하기도 하였다(Brennan, 1987). 특히 Hunt (1990)는 빛이 몸의 상태에 따라 변화한다는 데 착안하여, 특수염료를 이용한 안경으로 이러한 파장대를 확인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가 발산하는 에너지장의 색깔과 주파수를 정리한 바 있다(Table 3). 여기서 에너지장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단위의 에너지장이 측정된 것은, 동양에서 인체의 기를 관리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Table 3. Color and Cycle of Human Energy Field (Hunt, 1990)

Color	Cycle (Hz)	Subjects
Blue	250-275+	Common person
Yellow	500-700	Healer
Green	250-475	Healer
Orange	950-1,050	Mystic person
Red	1,000-1,200	Mystic person
White	1,100-2,000	Mystic person
Purple	1,000-2,000 (300-400, 600-800)	Mystic person

이를 양생의 대상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동서양 기 이론의 수렴을 목표로 하는 연구 작업에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Hunt의 실험 이외에도 근전도계를 이용한 마사지 적용 정도에 따른 근육의 전도변화, 켈리안(kirlian) 사진기를 통한 인체 주변의 오라 변화, 뇌파와 각 장기에서 발산하는 다양한 주파수들을 측정한 결과들은 인체의 에너지장이 홀로그램의 형태를 띤 일종의 에너지로서 이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사과정은 전자를 주고 받으면서 진행되는 산화·환원 반응의 하나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에너지 반응에 수반되는 파동이 생성되고 방사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체에 기초하여 개별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본다(Sohn, 2004). 인체의 에너지 상태에 대한 측정기술이 발전하면서 파동을 기본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목소리를 분석하여 이상이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문제되는 파동을 제거함으로써 음의 개선을 가져오는가 하면, 파동을 이용하여 조직 병리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거나 치유가 잘 안 되는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하기도 한다. 또한 인체에 주파수 대역별로 전기를 주입하면서 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전기 저항의 정도로 에너지 상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환자의 파동과 극성을 파악하여 문제의 파동이 상쇄되도록 고유의 파동을 주입하기도 한다(Bang, 2005). 특히 Yasji (2003)는 고전 음악을 인체의 정상적인 파동이 섞여 있는 복합적인 파동의 구성물로 파악하고, 이러한 파동을 식물이나 동물, 인간 유기체에 적용하여 이상이 있는 부분에 그 개인의 고유한 진동과 일치하는 파동과 공진시켰는데, 이를 통해 흐트러진 파동이 감소하고 정상 파동이 증가하여 치유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인체의 노쇠 과정을 기의 소모 과정으로 파악하는 연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언급할 만하다. 인간은 인체의 에너지 흐름이 원활치 못하게 되면서 내·외적 환경 변화에 둔감해 지는데, 근심이나 과로, 소화부담, 감기 등과 같은 작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에너지 흐름의 이상, 즉 갑작스러운 생명현상의 정지가 초래

되기도 한다(Kim & Lee, 1998). 명상을 통해 뇌파 중 α 파가 증가하면서 δ 파가 출현하고 대사감소로 혈중 유산소가 감소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써, 이로부터 노쇠의 진행 정도와 관련하여 인체의 소모현상 감소와 에너지(기) 흐름과의 관계를 추적할 필요가 제기된다. Sancier와 Hu (1991) 역시 기의 생물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의 원활한 순환이 T임파구 증가 및 만성 저해모그로빈혈증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배양된 섬유아세포의 호흡율과 DNA 및 단백질 합성이 기공사의 의지에 따라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한의학/동양의학의 진맥 개념을 보다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Gerber (1988)는 일찍이 1960년대에 북한의 김봉한이 현대 과학 장비를 동원하여 토끼의 귀로부터 경락과 정혈의 존재를 확인하여 봉한소체론을 발표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를 통해 경락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유럽의 연구자들은 경락을 지구의 자외선과 비슷하다고 이해하고 인체의 역동적 에너지 통로를 빛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를 메리디언(meridian) 또는 통로(channel)로 부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chlebusch, Maric-Oehler와 Popp (2005)는 침술에 대한 생리학적 연구를 통해 침 자극이 인체의 내부에 아편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opioid peptide를 형성시켜 통증을 완화시키게 되는 기제를 규명하였는데, 이들은 경락 또는 에너지 통로로서의 흐름을 제3순환계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 간주하고 이것을 기의 존재와 연결시키고 있다.

기 개념의 간호실무 적용

과학의 급격한 발달에 힘입은 의학적 치료기술의 성과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의과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서양의술에 대한 불만족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동서양의 공통적인 현상이다(Eisenberg et al., 1998). 특히 건강에 대한 총체적 관점의 보편화와 함께 보완요법(complementary therapy)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은 의과학의 한계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 개념을 원용한 전통 의료는 보완요법의 개발에 큰 공헌을 할 잠재력을 지닌다. 인간 존재와 건강 개념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추구하는 기 개념은 현재 의과학이 기초한 기계론적 사고가 초래한 여러 건강 문제에 유의미한 보완 및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전통 의료가 강조하는 바 총체적 인간관과 원활한 기의 흐름으로 파악되는 건강 상태는 대상자와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 대상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강조하는 현대의 총체론적 간호가 지향하는 건강 상태와 유사한 관계에 있다.

기존 의료체계하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비가 대상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통의료는 그 비용의 상대적인 저렴함과 실천의 용이함 때문에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보다 쉽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는 바 현대의학은 조직 병리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질병의 명백한 증상과 징후가 관찰되기 전에 나타나는 일종의 이상 신호 또는 증상의 발현 전 단계에는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의 흐름 또는 에너지장의 관점에서는 일반적인 질병 증상의 출현 전에 이미 기의 흐름 또는 에너지장의 이상상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를 이용하는 진단법은 현대의학의 취약한 부분, 특히 일상에서 적용 가능한 예방적 기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최근 간호 대상자들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기 개념에 기초한 간호중재 방식들이 개발되고 검증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적용 예들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뜸, 수지침, 지압요법으로부터 손요법, 기공, 요가, 심상, 향기 요법들에까지 이른다. 이처럼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는 중재 요법들은 논의한 바, 기 개념이 내포하는 복잡성과 개념적 포괄성에서 비롯된 바 크다 하겠다. 본 단락에서는 이들 다양한 중재요법들 중 대표적인 활용예로서 침과 뜸 요법을 포함하는 침구술과 지압 요법으로 대표되는 손 요법을 이용한 경험적 간호중재 방안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 개념을 원용하고 있으며 경험적으로 파악되는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우선 동양의 침구술(침, 뜸)은 기 이론과 그 실제 적용 방식과 관련해서 큰 함의를 가진다. 침구술은 기의 출입구로 알려진 경혈을 자극하여 경락을 흐르는 기를 조절하는 치료법을 말하며, 대상자가 보이는 기의 상태에 따라 보와 사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처럼 침구술이 인체의 경혈을 자극하여 기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는 방식은 일찍이 Krieger (1993)가 개발한 치료적 접촉(therapeutic touch) 및 동서양의 개념을 혼합하여 자연스럽게 합의된 치유적 접촉(healing touch) 개념(Dossey, Keegan, Guzzetta, & Kolkmeier, 1995)과 매우 유사한 이론적 틀을 지니는데, 이는 후자가 손을 통해 특유의 에너지를 구사하여 대상자의 교란된 에너지 장에 영향을 미쳐 치유 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침구술은 중국 고대로부터 경험적으로 적용해 온 것으로 그 원리가 해명되기에 앞

서 치료효과가 널리 알려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손, 발, 귀의 불편감 해소와 기능 강화와 관련된 전통 침구 요법의 적용 가능성이 꾸준히 탐구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수지침을 여성 월경 곤란증과 같은 일상적인 불편감 해소에 적용한 연구(Kim & Cho, 2001)와 스티커 침을 이용하여 특정 수술 후 불편감을 개선하려는 연구(Kim & Lee, 2005)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뜸 요법의 간호적용 역시 기 이론과 경락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데에서 고려할 만하다. 전통적으로 치료는 물론 건강 유지와 증진의 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뜸 요법은 현재 간호학의 입장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그 적용 가능성이 탐구되고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는 월경 곤란증이나 뇌졸중, 전고혈압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편감을 증가시키는 만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에서 그 적용이 시도되었다(Cho, 2006; Kim & Cho, 2001; Kim & Lee, 2002). 특히 뜸 요법은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그리고 의료비 절약의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랜 전통을 지닌 동양의 지압요법(acupressure)은 기의 순환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서양의 간호 실무에서 비교적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완·대체요법 중의 하나다. 이 요법은 인체의 특정 부위에 위치한 기혈의 통로인 경락을 손가락을 이용한 압박 등의 방식으로 자극하여 기와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킨다는 면에서 기 이론을 원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체의 조절 능력을 증진시키고 질병 방지와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Snyder & Lindquist, 2002). 우리나라에서는 Lee (2003)가 일종의 위약(placebo) 효과로 여겨지는 민간의 '엄마 손은 약손' 전통에 착안하여 약손요법(Yak-son therapy)을 개발, 정리하였는데, 이는 손을 이용하여 교란된 기의 흐름을 돕는다는 면에서 기존 기 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손요법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지압요법과 서양에서 개발된 손 요법(therapeutic touch; healing touch)은 침습적 방식인 침구 요법과 달리 특별한 기구나 재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상과 일상의 맥락 모두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기현상을 몸과 마음의 상태 모두를 아우르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이들이 성취한 경험적 연구 성과들은 동양의 전통적인 기 사상과 서양의 에너지/힘 사상의 유사점들을 점진적으로 밝혀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별 실험들이 지닌 다양한 이론적 성향과 결과물들은 기에 대한 보편적인 규정을 도출해 내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경락과 경혈이 과연 실재하는

가와 관련된 실체론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론적인 논쟁이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Jung, 1996; Sancier & Hu, 1991; Sohn, 2004), 기 개념의 현대 의료에의 적용이 이 개념을 원용하는 더 많은 과학적 연구와 실무 차원에서의 경험적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기 개념의 간호 실무에의 적용은—그 선구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일회적인 것에 그치거나 개별 실험 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적용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적용 이전에 기 개념에 대한 연구자와 대상자 사이의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졌다면 기 개념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연구자가 특정 요법을 대상자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한 경우들보다 긍정적인 결과들을 이끌어 내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는 기 개념에 입각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그들의 질환이 있는 부위에서 느끼는 특이한 감각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증진시키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Brennan, 1987; Dossey, Keegan, Guzzetta, & Kolkmeier, 1995; Kim & Lee, 1998; Krieger, 1993; Lee, 2003; Sancier, 1996)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기 개념을 활용하는 진단 방법을 따르자면 무엇보다 기/에너지 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론적 이해에 입각하여 건강 상태를 어떠한 방식으로 파악하며, 그에 대한 신체 각 부위의 구체적인 감각을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터득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고에서는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자주 접하게 되지만 그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 개념에 대한 인식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써, 우선 동양과 서양에 있어서 기 개념 및 이론들에 대한 역사·비교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기를 자연계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로 파악하고, 자연계의 부분으로서의 인체를 기의 체계로 이해하는 동양 이론은 우주 또는 자연의 본질을 에너지 또는 정수(quintessence)로 파악하는 서양의 총체론적 사고와 유사하며, 원활하고 조화로운 기의 흐름을 건강 상태의 본질로 이해하는 동양 의학의 관점은 에너지 장 안에 위치한 개별 인체가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바람직한 상태로 파악하는 서양의 총체론적 사유와 비교 가능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논문 후반부에서는 기 개념이 인간의 생명현상과 건강증진 및 유지와 관련하

여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서 침구술, 손요법, 지압 요법의 간호 실무에의 적용 예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기 개념을 원용하여 전통 요법들을 과학적으로 적용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려 했다는 데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법들을 간호 실무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기 개념을 현대 간호이론 및 실무에 통합하려는 시도라는 의의를 넘어서, 이를 통해 기존 의료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보완요법 개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최근 들어 기존 의료가 심인적 질환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의 질병(illness) 치료에 있어 한계를 노출하게 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통 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Eisenberg, Davis, & Ettner, 1998).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고에서 살펴본 기 이론과 이에 기반을 둔 다양한 시술법들은 인간의 질병에 대해 몸과 마음을 아우르는 총체론적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기계론적 사고에서 비롯된 일반 의료의 한계점들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가 의사에 비해 보완요법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Jang & Park, 2003), 간호 실무의 시각에서 보완요법의 실무 적용을 모색하는 것은 미래의 간호가 나아갈 방향에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기 개념을 활용한 중재 방법의 개발 과정에서 비롯된 일단의 문제들이 보완요법의 적용 효과와 연관된 특정 문제들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살펴본 바 기 개념을 원용한 기존의 연구들이 긍정적인 실험 결과들을 얻어낸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적한 대로 이들 경험적 연구들은 기 개념이 가지는 이론적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크게 보아 이 연구들이 전제하고 있는 기 개념에 대한 이론적 명료화나 과학적, 역사적 기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한편, 현재 보완요법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들 중 하나는 특정 요법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교육은 어떻게, 누가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학제 간, 전문가 간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부분적으로 보완요법이 기초하고 있는 기본 개념들에 대한 과학적 정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기 개념이 지닌 기존의 불명확성이 이를 활용하는 간호중재 개발의 본격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완요법이 내포하는 이러한 불명확성은 이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간호 이론 및 실천을 모색하는 데 있

어 일정한 어려움을 내정하고 있다.

보완요법의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파악되는 인간의 건강상태는 간호 대상자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기 이론의 핵심인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 속에 최적의 심신상태를 유지한다는 주장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적용 방식들을 비교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은 앞서 지적인 바 동양과 서양이라는 두 개의 맥락에서 발전되어 온 다양한 이론들의 수렴 가능성을 밝혀 줄 뿐만 아니라, 기 개념을 원용하는 보완요법의 이론적 불명확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또한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간호중재 방안의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완요법의 적용이 이들이 전제로 하는 기본 개념들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일정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 개념을 원용하는 간호중재 개발 과정에 보다 명료한 철학적,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작업은 현재 보완요법의 간호 실무 적용에 있어 나타나는 이론적 혼란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REFERENCES

- Bang, G. U. (2005). *Qi/moral & science*. Seoul: Yaein Publishing.
- Brennan, B. A. (1987). *Hands of light*. New York, NY: Bantan Book.
- Cho, S. H. (2006). *Effects of moxibustion on physiological indices and autonomic nervous symptoms in adult with prehyperten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Clark, A. M., & Louis, J. V. (1988). *Bioenergetic medicine east and west*. Berkeley: North Atlantic Books.
- Cuema, K. (1998). *Nursing Theory of Japan*. (M. J. Kim & K. W. Jo, Trans.). Seoul: Hyunmoon Publishing.
- Dossey, B. M., Keegan, L., Guzzetta, C. E., & Kolkmeier, L. H. (1995). *Holistic nursing: A handbook for practice*. Gaithersburg, MD: Aspen.
- Eisenberg, D. M., Davis, R. B., Ettner, S. L., Appel, S., Wilkey, S., Van Rompay, M., et al. (1998). Trends in alternative medicine use in the United State, 1990-1997.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0, 1569-1575.
- Gerber, R. (1988). *Vibrational medicine*. SantaFe: Bear & Comp.
- Hunt, V. V. (1990). Infinite mind. *Magical Blend, January*, pp. 22, 25.
- Jang, E. H., & Park, K. S. (2003). A comparative study of nurses and physicians' attitudes about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5, 402-410.
- Jung, U. Y. (1996).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nd prospective. *The Third Medicine*, 1(2), 57-82.
- Kim, B. E., & Lee, H. Y. (2002). Effect of moxibustion on urinary incontinence in stroke pati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7, 82-93.
- Kim, J. E. (1996). *Psychology of Qi*.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Kim, J. H. (2007, March 26). Reviving your Qi with meditation. The Yonsei Chunchu, 1561. Retrieved May 25, 2008, from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9909#>
- Kim, M. J., & Lee, M. S. (1998). Nursing approach to energy (Qi) flow.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3, 7-16.
- Kim, S. O., & Cho, S. H. (2001). Effect of Koryo Hand Therapy and moxibustion on menstrual problem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7, 610-621.
- Kim, Y. G., & Lee, H. Y. (2005). The effectiveness of meridian acupressure intervention using sticker needles to bowel movement on post spinal operative pati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1, 33-41.
- Krieger, D. (1993). *Accepting your power to heal: Therapeutic touch*. SantaFe: Bear & Co.
- Lee, D. H. (2003). *The Korean healing art of Yakson*. Seoul: Mind world Publishing.
- Lee, H. Y., Cho, K. J., Kang, H. S., & Shin, H. S. (2003). Research trend of oriental nursing in Korea.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8, 27-40.
- Lee, M. K. (2003). Effects of San-Yin-Jian (SP6) acupressure on anxiety, pulse and neonatal status in women during labor.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Nursing*, 9, 138-151.
- Sancier, K. M. (1996). Medical applications of Qigong. *Alternative Therapies in Health and Medicine*, 2, 40-46.
- Sancier, K. M., & Hu, B. (1991). Effects of Qigong and emitted Qi on humans, animals, cell cultures and plants: Review of selected scientific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Acupuncture*, 19, 367-377.
- Schlebusch, K. P., Maric-Oehler, W., & Popp, F. A. (2005). Biophotonics in the infrared spectral range reveal acupuncture meridian structure of the body.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11, 171-173.
- Snyder, M., & Lindquist, R. (2002). *Complementary/alternative therapies in nursing* (4th. e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Sohn, B. D. (2004). *Guda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eoul: Institut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 Wilber, K. (1996). *A brief history of everything*. Boston & London: Shambhala.
- Yasji, M. (2003). *Basic of the music therapy* (S. I. Kim, Trans.). Seoul: SamHo Music.
- Yonhap News Agency (2006, September 20). Unlicensed shaman-acupuncturist arrested. Retrieved December 20, 2007, from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f=total&n=200609260451>
- Yuasa, Y. (1992). *Qi and human science*. (B. G. Sohn, Trans.). Seoul: Rye-kang Publishing.